

# 귀향, 그 세속으로의 脫俗

고은 지음 「신왕오천축국전」 외

“법현의 「불국기」는 육지로 갔다가 바다로 온 기록이요, 현장의 「대당서역기」는 육지로 갔다가 육지로 돌아온 기록이며, 의정의 「남해기귀전」은 바다로 갔다가 바다로 돌아온 기록인 데 대하여 이 「왕오천축국전」은 바다로 갔다가 육지로 돌아온 점에 특색이 있다.”

이는 육당 최남선의 「왕오천축국전」 해제의 한 부분이다. 요즘에야 비행기로 갔다가 비행기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인도로 가는 교통수단의 「진화론」은 인도로 가는 ‘셋길’에 불과하다.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수다한 정보서·안내서들이 출간됐지만, 적어도 인도에 관한 한, 풍물기·인상기 내지 구도여행기가 훨씬 많은 중수를 차지한다. 우리 독자에게 인도의 지리적 거리 따윈 명절날 귀향하려 차표에매하는 번거로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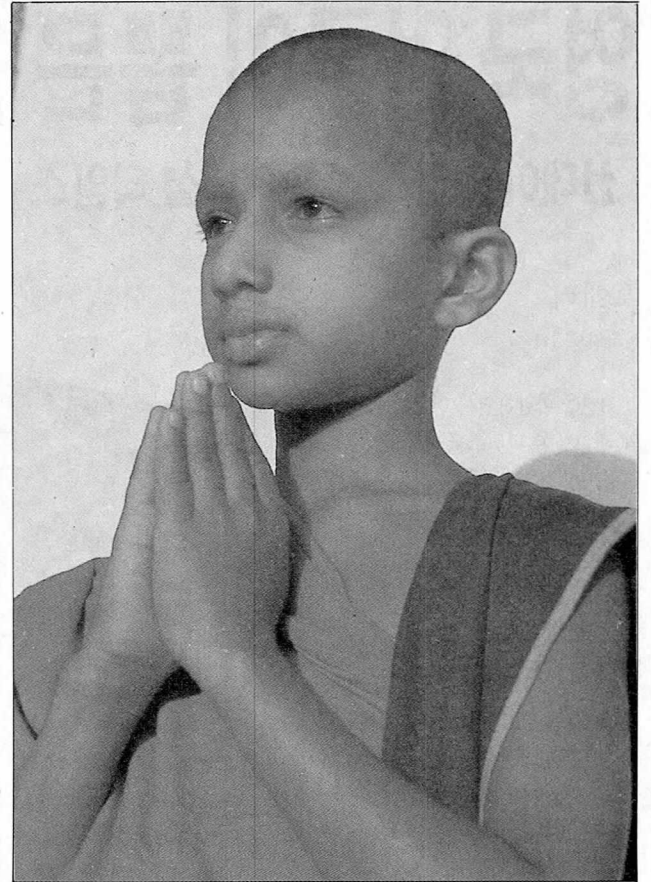
예를들어, 소설가 강석경씨의 「인도기행」, 법정스님의 「삶과 죽음의 언저리」, 불교학자 정병조 교수(동국대)의 「인도의 여정」, 수필가 김양식씨의 「갠지스강물 따라」 등은 ‘고향’과의 교감을 들려줄지언정 속박이나 불거리에 대해 쓴 것은 아니다. 거기에 보태어 근자에 출간된 ‘聖고은’씨의 「신왕오천축국전」(동아출판사), 주해신씨(금호 문산도 주식회사 상무)가 번역한 ‘인도의 오딧세이’인 「라마야나」(민족사)는 인도로 가는 각기 다른 ‘길’들을 보여준다. ‘귀향’이란 ‘세속 속으로의 脫俗’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고은씨의 연보는 해를 거듭할수록 짧게 작성되고 있다. “1933년 생/저서 1백여 권 간행”이 그 전부이다. 적어도 자신의 책은 사지도 읽지도 않아도 되므로 돈과 시간을 크게 절약

할 수 있는 ‘한국의 괴테’인 것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엄청난 생산을 추동했던 그의 허무주의적 광란의 황홀한 ‘非文’이 그러나 이 기행문에서는 많이 없어졌다. 힌두교의 늙은 바라문으로부터 “그대의 전생은 남인도였고 전전생은 강가(갠지스강) 기슭이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그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최초의 異域”인 인도를 자궁속의 태아처럼 유명한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거나 너무 늘려놓으면 제대로 소리나지 않는다는 ‘거문고 비유’의 깨달음을 하필(?) 인도에서 실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테면, 불교성지에서 그는 자이나교의 無衣派 수행자가 “숫제 늙어빠진 고추와 불알을 덜렁거리며...천연덕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목도한다. 이같은 이국적 풍경에 대해 고은씨는 즉자적인 반응 대신 각각 선험적·경험적인 ‘읽’으로써 설명한다. “모든 것과의 混居의 삶이 이 곳의 삶”이라거나 ‘나도 왕년에 다 해봤다’는 식의 진술이 그것이다. “지난날 서울 조계사 마당에서도 소나기가 퍼붓자 그 비를 알몸으로 맞고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는가. 이를 본 청담스님도 춤추지 않았던가.”

이같은 ‘악의어린’ 비난은 대상과의 교감이 남긴 깊숙한 곳의 흔적을 섬뜩하도록 생생하게 건져올렸던 그의 예전 산문에 견주어서만 타당할 뿐이다. 저자는 「신왕오천축국전」에서 막스 베버의 「힌두교와 불교」 등 서구지식인의 인도에 관한 서술 일체를 “하나의 장난감” 혹은 “현실로부터 유리된 미덕의 추상”이라 내칠 만큼의 압도적이고도 해박한 불경지식을



인도의 어린 사미승. 「신왕오천축국전」의 저자와 동행한 김형균씨의 사진.

전거로 예시하며 부처의 길과 혜초의 열망을 중흥무진 헤쳐나가고 있다.

이 책에는 무명의 방랑약사들이 민중의 영웅인 라마왕의 무용담을 낭송하는 장면도 포착돼 있다. 그 라마왕 이야기가 바로 「라마야나」이다. 「베다」 시리즈가 인도정복자계급인 아리아족의 경전이라면, 「라마야나」는 「마하바라타」와 더불어 ‘브라흐마니즘’을 표현한 ‘원주민’의 힌두교 경전이다(본지 135호 참조). 우리나라의 힌두문학 전공자들은 “책 내 줄 출판사가 없을 것”이란 ‘핑계’로 아직 본격적인 번역은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방대한 분량을 자랑한다. 총 2만4천 500여 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번에 번역된 민족사版 「라마야나」는 축약본을 저본으로 삼은 관계로 ‘원작’의 줄거리 요약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또한 「그리스·로

마 신화」나 「중국의 신화전설」(원가 저)과 같은 짜짜인 구성도 찾기 힘들다. 그러나 100페이지지만 참고 견딘다면 이후의 줄거리는 환히 파악된다. “20km마다 언어가 달라진다”는 인도를 융화시킨 ‘용광로’ 이므로 혼을 난타할 만한 엄청난 신화적·종교적 비유와 상징으로 점철돼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부채질하는 구절들이 끝까지 읽히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가 태양열에 타서 날개를 상한 채” 또는 “아침부터 시작해 저녁까지 태양을 따라... 달릴 수도 있습니다” 등등의 구절은 각각 이카루스와 중국신화의 한 거인 이야기를 상기케 한다. “오른쪽 눈이 떨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징조” 등은 인도특유의 상상체계일 터이다. 인도인의 왼손은 똥씻는 손이다.

—김중식 기자

##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아이들도 인류 전체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전쟁, 공해, 텔레비전의 홍수, 인종 차별, 노인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은 사랑, 우정, 평화, 자연의 아름다움, 창조주의 신비, 고통의 의미를 깨우쳐 갈 것입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

- 1 나만이 아는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2 장난꾸러기 꼬마전구 E. 리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3 비릴로의 동물농장 M. 아놀렛티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4 평화의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5 여덟가지 진짜이야기 E. 산단게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6 보물이 숨겨져 있는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7 천지창조 이야기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8 진주섬 이야기 I.G. 올리바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9 가장 소중한 성탄선물 L.C. 알리만디 지음/노재운 옮김/3,000원
- 10 하느님, 제 기도 들어보세요 M. 라이스트 지음/강성위 옮김/4,000원
- 11 물방울의 추억 E. 드랄라 지음/채윤경 옮김/3,000원
- 12 황새와 아기바구니 M. 아놀렛티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3 사랑을 나누는 곰, 보로 R.M. 론디니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4 뇌 속으로의 여행 F.B. 니카소 지음/김홍래 옮김/2,500원

- 15 거리의 화가 F.B. 니카소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6 가난뱅이 쥘리와 아르니카 E. 라자르 지음/채윤경 옮김/4,000원
- 17 평화의 어린이들 G. 스타스 지음/채윤경 옮김/3,000원
- 18 아프리카 동화 아지리안, 케넬럼 역음/노재운 옮김/3,000원
- 19 두 임금님 F.B. 니카소 지음/채윤경 옮김/3,000원
- 20 낡은 자동차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21 코벨소에게 안경을 씌워 주세요 이윤희 지음/4,000원